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1.1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호라이즌 유럽의 국제적 도약을 위한 5가지 과제(1.4)

-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)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
- 호라이즌 유럽에는 27개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20여개 준회원국, 117개 개발도상국이 참여할 수 있으며, 이는 전 세계 연구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명의 연구자가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
- ※ 한편, 미국 등 제3국은 자체연구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
- ※ 지난 2년간 준회원국 연구자는 호라이즌 유럽 전체 예산의 6.9%에 해당하는 19억 유로를 지원받음(이는 EU 소재 외국계 기업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)
- 호라이즌 유럽이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먼저 FP를 EU 내 연구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,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하며, 국제적 도약을 위해 준회원국들의 공정한 발언을 보장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 고려, 행정 효율성 개선,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

○ EU, 유럽보건데이터공간(EHDS)에 대한 3자협상 진행(1.9)

- 지난 12월 13일 유럽의회가 협상 입장을 채택함에 따라 EU 기관 간 3자협상이 시작되었으며, 다음 회담은 1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
- 주요 논점은 환자의 보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당사자에게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이며, 유럽의원들은 결국 유전자 및 게놈 정보와 같은 특정 민감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옵트아웃 옵션을 선택하였으며, EU 이사회도 이를 지지함
- 한편, 각 EU 회원국이 해당 옵션을 이행하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협상에서 주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
- EU 이사회는 2년의 이행 기간 후 데이터 등록에 5~7년을 허용하기를 원하며, 이는 EHDS가 채택된 후 9년이 지나야 완전히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, 유럽의회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안의 이행 타임라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

- (기타) ▲유럽의원, 학문의 자유 포함하기 위한 EU 창립 조약 개정 추진(1.4) - 학문의 자유 관련 유럽 주요 현황 ▲AI 전문가, “유럽, 선도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적인 맨해튼 프로젝트 필요”(1.4) ▲EU, EU 기관 내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새로운 규정 발효(1.7) ▲집행위, 두 개의 새로운 유럽연구인프라 컨소시엄(ERIC) 설립(12.22) ▲유네스코, 오픈 사이언스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발간(1.9) ▲EARTO, 호라이즌 유럽 럽섬 펀딩 인건비 등 관련 입장서 발표(1.8) ▲집행위, 마리퀴리 프로그램(MSCA) 연구비 집행 가이드 발행(12.14)